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11.

I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1
	4) 응답 업체 특성	2
II	조사 결과	3
	1)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 대비 회복 정도	3
	2) 위드 코로나연말 송년회 시점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	4
	3)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	5
	4)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	6
	5)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	7
	6)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	8
	7)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9
	8)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	10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11월 1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됨에 따라 매출 회복 전망·향후 불안요소 등 소상공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1) 조사대상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중사 소상공인
2) 표본수	603개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른 전화 조사
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99%P
5) 조사기간	2021. 11. 3(수) ~ 11. 5(금)

3) 조사 내용

-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 대비 회복 정도
- 위드 코로나연말 송년회 시즌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
-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
-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
-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

4) 응답 업체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 업체 603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응답 업체 수(개)	비중(%)
전체	(603)	100.0
업종	도·소매업	(200) 33.2
	숙박·음식점업	(288) 47.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19.1
	소재지	
수도권	(335) 55.6	
지방	(268) 44.4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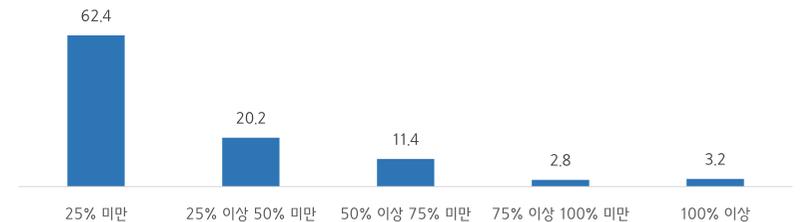
1)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 대비 회복 정도

- < 1차 개편(11.1 ~ 12.12) 주요 내용 >**
-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 제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 도입

-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 대비 회복 정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25% 미만’이 62.4%로 가장 많았고, ‘25% 이상 50% 미만’은 20.2%, ‘50% 이상 75% 미만’은 11.4%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50% 이상 75% 미만’ 응답이 20.0%로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 대비 회복 정도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1]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대비 매출 회복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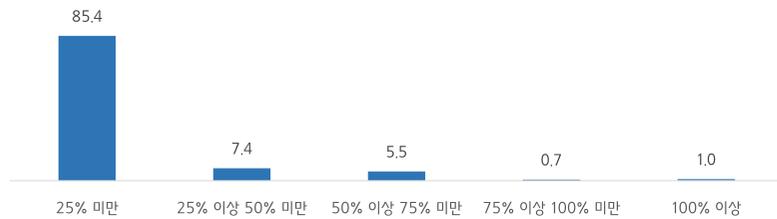
구분	업체 수(개)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전체	(603)	62.4	20.2	11.4	2.8	3.2
업종	도·소매업	(200) 66.5	18.5	6.5	3.5	5.0
	숙박·음식점업	(288) 61.1	22.2	11.5	3.1	2.1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58.3	18.3	20.0	0.9	2.6
소재지	수도권	(335) 63.3	19.7	11.6	3.0	2.4
	지방	(268) 61.2	20.9	11.2	2.6	4.1

2) 위드 코로나연말 송년회 시즌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

- 도·소매업을 제외한 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및 연말 송년회 시즌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25% 미만'이 85.4%로 가장 많았고, '25% 이상 50% 미만'은 7.4%를 차지함
- 업종과 관계없이 '25% 미만' 응답이 타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위드 코로나연말 송년회 시즌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

(base : 도·소매업을 제외한 응답 업체(n=403), 단위 : %)



[표 2] 위드 코로나연말 송년회 시즌에 따른 11, 12월 예약 손님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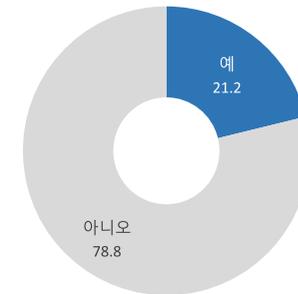
구 분		업체 수 (개)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전 체		(403)	85.4	7.4	5.5	0.7	1.0
업종	숙박·음식점업	(288)	84.4	8.0	5.9	0.7	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87.8	6.1	4.3	0.9	0.9
소재지	수도권	(243)	88.5	5.3	4.5	0.4	1.2
	지방	(160)	80.6	10.6	6.9	1.3	0.6

3)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

- 응답 업체의 21.2%는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이 있다고 밝힘
-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매출 회복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이 있다' 응답이 34.8%로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3] 매출 회복 기대에 따른 구인·구직 계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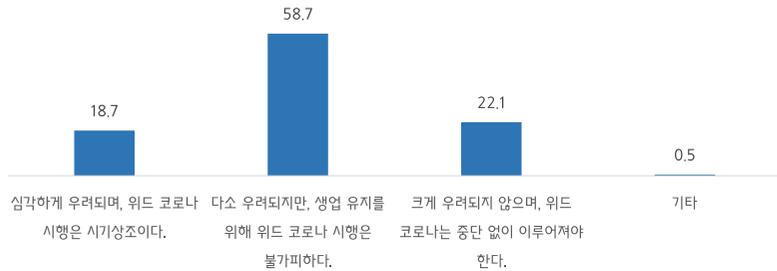
구 분		업체 수 (개)	예	아니오
전 체		(603)	21.2	78.8
업종	도·소매업	(200)	16.5	83.5
	숙박·음식점업	(288)	19.1	80.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34.8	65.2
소재지	수도권	(335)	21.8	78.2
	지방	(268)	20.5	79.5

4)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

-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소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8.7%로 가장 많았고,
 -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22.1%, ‘심각하게 우려되며, 위드 코로나 시행은 시기상조이다’는 응답은 18.7%였음
 -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7.0%로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4]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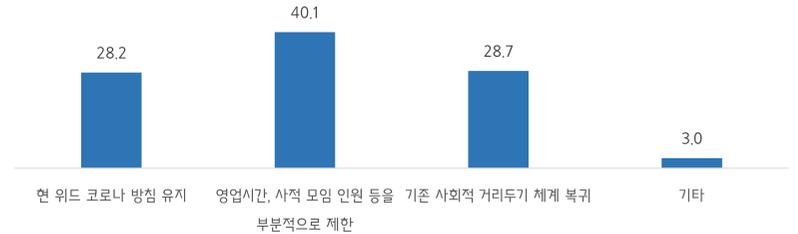
구분	업체 수 (개)	심각하게 우려되며, 위드 코로나 시행은 시기상조이다	다소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전체	(603)	18.7	58.7	22.1	0.5	
업종	도·소매업	(200)	18.5	63.5	18.0	0.0
	숙박·음식점업	(288)	17.7	59.0	22.9	0.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21.7	49.6	27.0	1.7
소재지	수도권	(335)	17.0	61.8	20.6	0.6
	지방	(268)	20.9	54.9	23.9	0.4

5)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

-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을 때,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이 40.1%로 가장 많았고,
 - 그 뒤를 이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복귀’가 28.7%,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가 28.2%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 응답이 33.0%로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5]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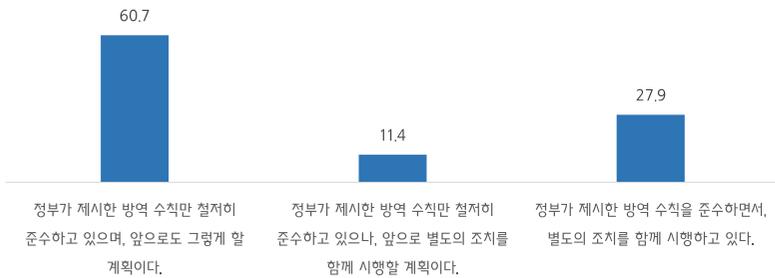
구분	업체 수 (개)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복귀	기타	
전체	(603)	28.2	40.1	28.7	3.0	
업종	도·소매업	(200)	26.5	43.0	29.0	1.5
	숙박·음식점업	(288)	27.4	39.2	29.5	3.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15)	33.0	37.4	26.1	3.5
소재지	수도권	(335)	27.5	43.3	25.7	3.6
	지방	(268)	29.1	36.2	32.5	2.2

6)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

- 매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만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 외에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7.9%,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1.4%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응답이 40.0%로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6]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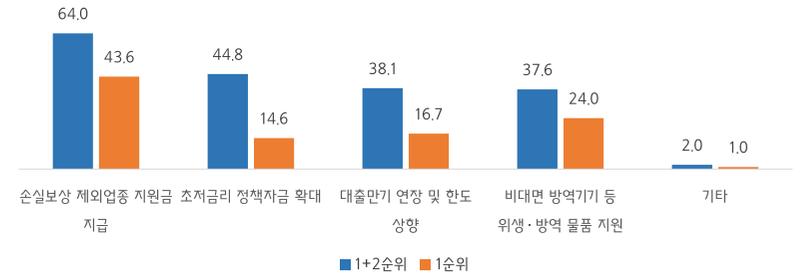
구 분	업체 수 (개)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만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만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전 체	(603)	60.7	11.4	27.9
업종	도·소매업	74.5	7.5	18.0
	숙박·음식점업	55.6	14.6	29.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49.6	10.4	40.0
소재지	수도권	63.6	9.3	27.2
	지방	57.1	14.2	28.7

7)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1+2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가 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이 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방역 물품 지원’이 37.6%로 뒤를 이었음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55.0%),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50.0%)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희망하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base : 전체(n=603), 단위 : %)



[표 7]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1+2순위)

(단위 : %)

구 분	업체 수 (개)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방역 물품 지원	기타
전 체	(603)	64.0	44.8	38.1	37.6	2.0
업종	도·소매업	50.0	55.0	50.0	32.0	0.5
	숙박·음식점업	70.5	39.2	31.6	41.7	2.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72.2	40.9	33.9	37.4	3.5
소재지	수도권	64.2	43.9	35.8	41.2	2.1
	지방	63.8	45.9	41.0	33.2	1.9

8)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

- 정부·관련단체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제재·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대출 한도 상향 및 저금리 이자 지원’, ‘세금 감면·인하’ 등의 의견이 나옴

[표 8]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

구분	내용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매출 향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체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책 마련	업종, 규모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업종 분리를 통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피해를 본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
	유형업소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규모, 매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를 배려해야 한다.
	이전 매출과 현재 상황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소규모 사업장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	
손실 보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대출	손실 입증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신속하지 않다.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
세금 감면	저금리 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임대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전기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인하해야 한다.
	각종 제재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용등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모, 매출 등과 무관하게 규제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정부 방역	폐업 후 신규 개장 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주기적인 방역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환불 요청이 많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계속해야 한다.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
기타 의견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지자체별 실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승마 관련 업종은 지원이 없다.
	숙박업소 대상 회이나 위생교육이 너무 잦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 감축으로 어렵다.